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3장 기개(棄蓋) ⑦<끝>

오개번뇌 끊는 자리가 일체 선공덕 일으키는 곳

問曰 不善法廣 塵數無量 何故但棄五法 答曰 此五蓋中 卽具有三毒等分 四法爲根本 亦得攝八萬四千諸塵勞門 (一)貪欲蓋 卽貪毒 (二)瞋恚蓋 卽瞋毒 (三)睡眠及疑 此二法是癡毒 (四)憍悔 卽是等分攝 合爲四分煩惱 一中有二萬一千 四中合爲八萬四千 是故除此五蓋 卽是除一切不善之法 行者如是等種種因緣 棄於五蓋

여기에서는 문답을 가설하여 의심에 대해 풀이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선하지 못한 법이 가이없이 광대하여 그 수가 무량무변한데 무엇 때문에 유독 탐 진 치 등 오개법(五蓋法)만을 버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겠다.
오개법 가운데는 탐 진 치 삼독법과 탐 진 치에서 평등하게 분류된 등분법(等分法)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때문에 이 네 가지 번뇌법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탐심은 탐욕이며, 진심은 진애심이며, 치심은 우치함이다. 이 세 가지 삼독법은 각자 소속은 있으나 유일하게 등분이라는 이 하나의 종류는 탐 진 치 세 종류의 번뇌를 두루 포섭해서 거두어들인다.

일시일념 가운데 바로 탐 진 치를 갖추고 있거나, 탐심을 일으키다가 다시 진심을 일으키기도 하며, 진심을 일으키다가 다시 탐심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는 삼독이 대치하면서 일제히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것을 두고 등분번뇌라고 말한다.

비록 악한 법이 많기는 하지만 팔만사천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팔만사천 악한 법도 역시 탐 진 치 등분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의 번뇌가 팔만사천 번뇌를 포섭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팔만사천번뇌는 오염의 의미를 말하는데, 그것은 갖가지 사견번뇌가 우리의 자성정정성을 모두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범부 중생들은 이러한 사견번뇌에 항상 수고롭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겁토록 생사윤회가 끝날 기약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근본번뇌를 논해보면 탐(貪) 진(瞋) 치(癡) 만(慢) 의(疑) 신견(身見) 변견(邊見) 계급취견(戒禁取見) 견취견(見取見) 등 십사(十使)번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십사번뇌 가운데서 하나의 번뇌가 으뜸이 되면 나머지 아홉 개 번뇌는 보조활동을 하게 된다. 즉 한 가지 번뇌가운데는 동시에 열 가지 번뇌를 각각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십사번뇌는 마침내 일백 가지 번뇌를 이룬다.

이 일백번뇌를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배대하면 삼세가 각각 일백번뇌가 있기 때문에 다

진로번뇌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번뇌가 팔만 사천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번뇌는 오개로 다 수습된다.

왜냐하면 팔만사천번뇌는 모두가 탐 진 치 삼독으로서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독은 오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개는 삼독에 포섭된다.

첫 번째 탐욕개는 탐욕에 포섭되고, 두 번째 진애개는 진애에 포섭되며, 세 번째 우치개와 의개는 치욕에 포섭된다.

이같은 세 종류의 번뇌를 모두 ‘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독은 마시기만 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탐 진 치 세 종류의 번뇌가 우리의 법신부모를 독처럼 죽이

譬如負債得脫 重病得差 如饑餓之人得至豐國 如於惡賊中得自免濟 安穩無患 行者亦如是 除此五蓋 其心安穩 清涼快樂 如日月以五事覆照 人心五蓋亦復如是

여기에서 비유로서 오개를 제거하면 이익을 얻게 되는 모습에 대해 밝혔다.
수행자가 오개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것은 마치 부채를 걸머진 사람이 그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고, 오개를 버리면 걸머진 빚에서 바로 해탈하여 자유자재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또 오개번뇌가 있는 사람은 마치 증병을 앓는 사람이 흡사하고, 오개를 버리면 증병을 앓는 사람이 차도가 있어 병이 낫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오개를 버린 사람은 굶주린 사람이 풍족한 나라에 도달한 것과 같고, 악한 도적 가운데서 벗어난 것과 같다. 이와 같다면 그의 몸과 마음은 자재하고 쾌락하여 근심이 없을 것이다.

수행자가 오개를 제거하면 마음이 안온하고 시원하여 쾌락하다. 가령 오개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원하고 즐거운 일을 담론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개가 자신의 마음을 덮고 가린 것이 마치 다섯 가지 일이 해와 달을 가린 것과 같다. 접이다.

다섯 가지 일란 연기 티끌 구름 안개 나후 아수라의 손이다. 나후아수라의 손은 가장 크고 광대하여 해와 달 등 모든 광명도 가릴 수 있다고 한다. 그 나머지 연기 티끌 구름 안개도 역시 해와 달의 광명을 가릴 수 있어 해와 달이 대지를 환하게 비추지 못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오개번뇌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성 청정심을 가려 환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이상에서 비유로서 오개번뇌의 해로움을 나타냈다.

■ 송강송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탐·진·치·등분법이 팔만 사천 번뇌 포섭 범부는 사견때문에 생사윤회 단절되지 않아

시 삼백번뇌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일백번뇌는 시간에 저촉되어 서로가 보조활동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로 일백번뇌에 머물게 된다.

과거와 미래 이세의 이백 번뇌 가운데는 또 각각 하나의 번뇌를 으뜸으로 삼으면 나머지 아홉 번뇌가 그 한 번뇌를 보조하여 이백 번뇌가 공동으로 이전 번뇌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다 현재의 일백번뇌를 합하면 이전 일백번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 탐 진 치 등분의 네 종류 중생에게 각각 이전 일백 번뇌가 있어 이것이 다시 팔만사천 번뇌를 함께 이루게 된다. 또 사대(四大)와 육쇠(六衰)의 편에서 보면 지수화풍은 사대이고 색성향미촉법은 육쇠인데, 이것은 선법을 쇠잔하게 할 수 있다.

이같은 사대 육쇠의 십중번뇌에는 각각 팔천사백 번뇌가 있어서 총체적으로 팔만사천

고 공덕마저 잃게 한다는 접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번뇌를 삼독번뇌라고 한다.

네 번째로 도회(悔)는 등분에 포섭된다. 도회는 안과 밖이 있는데, 안에서 일어나면 마음이 산란하고 밖으로 일어나면 몸과 입이 산란하여 이 산란심이 신구의 삼업에 두루 보편하게 일어나게 된다. 때문에 등분에 포섭된다.

이상의 번뇌를 분류하면 오개번뇌이고 종합하면 네 분야의 번뇌가 되는데, 한 가지 번뇌의 분야 가운데는 이만일천의 모든 진로론(塵勞門)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네 분야의 번뇌를 하나로 합하면 팔만사천번뇌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오개번뇌를 제거해서 버릴 경우 이는 바로 일체의 모든 선하지 못한 법을 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수행인은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개법을 급히 버리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3)상온(想蘊)

‘상온(想蘊)’은 수온을 통해서 좋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여하에 따라서 대상사물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지적작용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는 지정의(知情意) 가운데서 지(知)적인 방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온은 수온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진 대상의 경계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인상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고, 그 모습에 따른 지적 관념을 일으켜서 그 관념에 걸맞는 다양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온도 색은·수온과 마찬가지로 중생들이 번뇌를 일으키는 모습을 평면적으로 나열하여 번뇌가 일어나는 초소를 순차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친 부처님의 훌륭한 방편입니다.

가령 푸른색을 띤 사물을 마주하고 그것을 인식할 때, 이것이 푸른색이지 나머지 다른 하얀 색이나 붉은 색 등이 아니라고 한계개념을 규정하는 다음 이를 바탕으로 다른 푸른색 사물과 다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추리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대상을 식별 그에 걸맞는 명칭부여 끝없이 비교추리하는 지적분별활동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푸른색 바탕은 마찬가지이나 그 푸른색 사물이 웃에 있는 푸른색 인가, 아니면 꽃에 있는 푸른색인가를 구별 짓고 그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는 우리의 지적작용인 것입니다.

이 같은 작용을 세분하여 ‘육상신(六想身)’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안근에 부딪힌 색경을 의지해서 일으키는 지적작용으로부터 의근에 부딪힌 법경에서 일어난 지적분별활동까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중생들은 이러한 지적 관념에 따라서 그 대상은 무상(無常)인가 유상(有常)인가, 혹은 크고 작은 것의 크기가 무량(無量)인가 유량(有量)인가 하는 등의 끝없이 비교 추리하는 지적 사고활동이 일어납니다.

이 같은 지적활동은 다시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 십일중상온(十一種想蘊)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지적활동이 하나의 무더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수온이라고 합니다. ■ 정리=張如舟

수행요가의 상징 요가삼밀과정(2년)

요가삼밀학과

신입생 모집

- 개설취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강중심의 요가. 보다 나은 자아완성을 위한 본질적인 요가를 교육하면서 더 나아가 신, 구, 의 삼밀수행 차체를 나타내는 진언, 수인, 관법의 밀교의 수행을 통한 불교요가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요가삼밀학과 (2년과정)**
- 개강일시 : 4월 6일(일) 오후 2시**

기간·요일	과정	지도교수
2년과정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요가과정 · 요가이론, 요가스트라, 요가생리학, ·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아사나실습, · 요가자기진단법, 요가운동치방법	요가안지용교수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종안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였던 중국 송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영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송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송산소림사 석영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송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분할 용화사,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숙연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불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고자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시길 대덕큰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도계첩 수여(입종비:15만원)
- ◇ 입종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서
- ◇ 입종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서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주 3회 2시간 청곡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예: 주 3회 2시간 석천 김기섭선생
- 소림무술: 소림무술스님: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영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송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당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 (아후) 연합불교방송

VIP 여행사

불교성지 순례상품

[불교성지순례]
▶ 문수도량 : 오대산 순례 + 북경(5박 6일)
₩ 990,000

[불교성지순례]
▶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 상해 / 항주 / 소주(5박 6일)
₩ 890,000

[불교성지순례]
▶ 지장도량 :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순례 + 황산(7박 8일)
₩ 1,090,000

[불교성지순례]
▶ 미안나 양근 / 바간 / 만달레이 순례(5박 6일)
₩ 1,500,000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주)VIP여행사 |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 055)743-5001 / Fax 055)743-5003
E-마트 : ☎ 055)741-9999 / Fax 055)742-4444

대한민국 제2회 맥(脈)수련회

121세기 인류의 문제와 진리의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
2. 한국의 鮮脈사상을 연구해 국내외에 보급하고자 하는 분.
(한국선, 진역명리, 육합풍수지리, 전통한방원론천부경, 도덕경...)
3. 한국전통민방요법을 연구해 향토명사가 되고자 하는 분.
4. 유전정보에 의한 유전자(DNA) 컨트롤에 의하여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수 있는 원리강론
5. 세계에 맥사상을 보급해 자신과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우리와 함께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맥수련 안내

일 시 : 2008년 3월 29일(토) ~ 3월 30일(일)
1박 2일 (매일 마지막 토·일요일)
장 소 : 충남 공주시 상신리 “지승정” 수련장
초청강사 : 白石 박 경진 선사님 (참선지도 25년 경력, 관련서적 40여권 집필)
주 제 : 세계적인 鮮脈 지도자가 되는 길
주 회 : 日脈太學教
참가비 : 10만원 (입학금 10만원)
교육문의 : 043)283-2278 / H.P 010-9701-0675
장소문의 : 041)881-9575

日脈太學教는 대한민국의 선맥을 보급하는 21세기 세계적인 지도자 100명을 양성하여 국내외에 파견할 목표로 새롭게 시작하는 진리의 전당입니다.